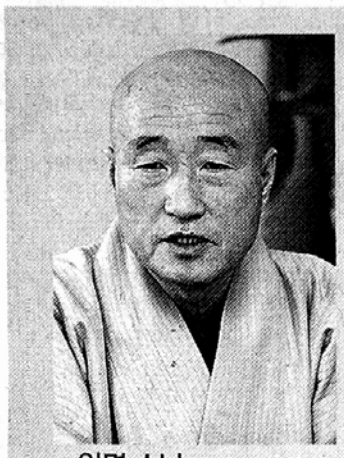


일면 스님

"한글대장경 활용 공부하는 불제자"



은정희 교수

"완벽한 번역위해 인재양성 최우선"



최철환 부장

"역경을 수행삼는 스님들 더 많아야"

고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그런 자리가 마련되면 좋은 사람들이 큰 원력으로 모여들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보다 완벽한 번역의 문제입니다. 한글화라는 명제는 지당하지만 그 내용에서 한글화가 무색할 정도로 오역이 되거나 경전의 본질을 어긋나는 해석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한문원전을 보라고 권하는 편이 낫겠지요.

최철환: 솔직하고 아픈 지적입니다. 사실 역경원 설립 초기에는 번역하고자 하는 경전에 대한 전공자가 없는 경우가 허다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경전을 우선으로 선정해 번역을 하다보니 체계적인 순차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한문 해석을 잘 하는 것과 경의 대의를 잘 알고 번역하는 것은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36년이란 시간을 진행해 오는 사업이다 보니 그 사이에 전공자도 생기고 관심 있는 분들의 지원으로 초기의 문제점들을 대다수 해결했습니다. 맞춤법의 문제와 같은 기술적인 문제들도 꾸준히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역경불사를 매듭짓는다고 하지만 그 보완작업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역경 초기 문제점 해결

은정희: 논문을 쓰기 위해 경전을 읽는 경우에는 혼자 주석서에 의존해 읽는 것보다 함께 공부하는 사람 몇 명이 윤독을 하고 자신의 견해를 분명하게 밝히며 토론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역경을 할 때도 그런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에도 번역분과, 증의분과, 윤문분과가 나누어져 있지만 각 분과별로 많은 의견과 토론을 거칠 수 있다면 보다 좋은 번역이 될 겁니다.

사회자: 한글대장경의 대중화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어렵게 만든 한글대장경이 음식에는 들어가지도 않는 '부뚜막의 소금'이 되어서는 안 될 테니까요.

일면스님: 세간에서도 어려운 일과 더러운 일과 위험한 일은 회피하는 풍조가 있다고 합니다만, 스님들도 면학을 전제로 하는 경전 공부는 기초교육기관 이수 정도로 마치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이제 점차 사라지리라고 봅니다. 법회를 주도하거나 대중 법문을 하기 위해서는 신도들보다 지식적인 면에서나 수행자의 위의가 돋보여야 하기 때문이죠. 사실 종단에는 학림이나 승가대학원 과정에서 전문적으로 경학을 연구하여 역경의 견인차 역할을 할 인재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교육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기왕에 한글대장경이 완간 되었으니 도심 포교당의 스님들도 공부하는 분위기를 형성할 것이라 봅니다. 나도 법회에서 법문을 하는 경우가 한 달에 5회 이상은 되는데 정기법회의 경우 하나의 경전을 택해서 강론식의 법문을 하니까 신도들이 좋아합니다. 책을 통해 복습도 하고 예습을 해 올 수도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한문 경전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스님과 한글경전을 통해 포교 일선에서 뛰는 스님으로 대별 될 것으로 봅니다.

은정희: 스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신도들에게 경전을 읽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스님들이 법회에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알아듣기 힘든 법문보다는 체계적이고 쉬운 법문이 신행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강단에서도 그런 경험을 하는데, 학생들에게 무슨 책을 읽으라고 막연하게 제시하면 책을 안 봅니다. 무슨 책을 어디서 어디까지를 읽으라고 조목조목 일러주면 책을 구해서 읽어 옵니다. 법당에서 스님들이 무슨 경을 보라고 권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경전을 어떻게 얼마큼 씩 읽으라고 지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글대장경을 문고본으로도 펴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최철환: 역경원에서는 번역작업은 끝났지만 보완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보급판을 만들어 일반 보급에도 나설 생각이고 무엇보다 개역 작업을 거쳐 인터넷 상에도 한글대장경을 올리고자 합니다. 한글대장경의 디지털화 작업에도 10년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해 가는 언어문화를 따라잡으면서 각 경전들이 갖는 대의를 충분히 살린 역경서들을 내놓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 한글대장경의 번역 완료와 완간은 큰 초석이 될 것입니다.

한글경전 포교 큰 도움

일면스님: 교육원은 올해를 '교육중흥의 해'로 정했습니다. 각종 연수회나 회의를 통해 한글대장경의 활용도 강조하고 법계 고시도 강화하여 공부하는 종단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원의 계획에 때맞춰 한글대장경이 완간되어 몹시 기대가 큽니다.

사회자: 현대불교신문사와 동국역경원은 한글대장경이 보다 많은 불자들에게 읽히고 보다 많은 사찰에 봉안되기를 바라며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라는 주제의 캠페인을 벌입니다. 조계종과 종단협의회가 후원하는 이 캠페인이 불교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동국역경원이 걸어온 길

동국역경원은 1974년 7월 21일 동국대 대학선원에서 개원식을 갖고 첫발을 내디뎠다. 초대 원장은 운허스님. 이에 앞서 62년에는 조계종이 3대사업으로 포교 · 역경 · 도제양성을 정하고 역경위원회법을 제정, 역경원의 설립 기초를 다졌으며 63년에는 조계종 총무원장과 동국대 총장이 동국대학교 부설로 동국역경원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대장경의 한글화를 위한 불교계의 염원은 그 이전부터 현실화되어 동국역경원이 설립되기 직전인 63년 6월에는 대한불교청년회가 〈우리말 팔만대장경〉을 간행했는데 이때 운허스님과 법정스님, 이종익 박사 등이 동참했었다. 〈우리말 팔만대장경〉은 역경원이 대장경 한글화 불사를 시작하는데 많은 경험적 뒷받침이 되었다.

동국역경원이 개원한 후 펴낸 첫 한글대장경은 〈장아함경〉으로 2천부를 출간했다. 초기 역경위원으로는 운허스님을 비롯해 탄허스님, 법정스님, 김달진, 조지훈, 서정주, 우정상, 홍정식, 이종익 등 당대의 학승과 기라성 같은 학자와 문인들이 대거 참여했었다. 이들은 수시로 간담회를 가지며 경전의 한글화에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 66년부터는 국가의 재정지원도 받게 되어 활기찬 역경불사를 전개, 1970년까지 매년 8책씩을 간행했다. (정부의 재정지원은 70년 이후 중단되었다가 1994년부터 재개되었다)

강남 봉은사에 역장(譯場)을 두어 역경연수생을 양성하는 등 역경사 양성과 역경사업 전개를 해 왔으며 이들 토대로 73년까지 총 67책을 발행했다. 역경원은 76년 부처님 오신날에 고려대장경 영인본 전 48책1질을 완간해 불교계에 법공양을 했다. 그러나 봉은사 역장은 잇따른 80년대 중반 이후 종단 사태로 폐쇄되어 아쉬움을 남겼다.

1979년 운허스님이 명예원장으로 추대되고 영암스님이 제2대 원장으로 취임해 85년까지 한글대장경 제100집이 간행되었는데 이때를 계기로 장정을 변형해 신판한글대장경을 발간하기 시작했다. 1987년 제3대원장에 취임한 자운스님은 1992년 입적 때까지 원장직을 역임했다. 자운스님은 역경불사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역경지원에 노체를 아끼지 않았다.

따지고보면, 역경불사는 종단과 동국대학교, 정부의 관심 속에 진행된 것이 사실이지만 현장의 작업의욕은 역경원장을 맡은 스님들의 원력에 큰 힘을 입었다.

초대원장 운허 스님은 당대의 대당백으로서 후학양성과 역경작업에 일생을 걸었던 스님이고 제2대 원장 영암 스님과 제3대 원장 자운 스님도 역경불사를 위해 쌈지돈까지 털어내는 의욕을 보였다.



◇1964년 7월 21일 역경원 개원식.

64년 7월 개원식
76년 대장경 영인본 발간



◇1965년 10월 17일 용주사에서 열린 역경위원회간담회. 운허 스님, 탄허 스님, 조지훈, 서정주, 우정상, 홍정식 등 15명 참석.

94년 정부지원 다시 받아
95년 역경후원회 발족



◇1973년 8월 20일 봉은사 역장에서 열린 역경연수원. 가운데 앉은 운허 스님과 뒷줄 우측으로 법정, 밀운 스님이 보인다.

역경불사는 1993년 제4대 원장 월운스님의 취임과 더불어 활기를 띄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정부의 국고지원이 재개되었다. 94년부터 4년간 13억원의 국고를 지원 받았으며 98년에는 2년간 지원을 연장받아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했다.

무엇보다 역경원의 역경불사를 돈독하게 지원한 단체는 1995년 발족한 역경후원회, 삼장법회다. 조계종의 원로 석주스님이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후원회는 매월 두번째 주 금요일 오후 2시 동국대 대각전 법당에서 역경후원회 법회를 갖고 있다. 현재까지 회원은 2500명에 이르고 있으며 그간 4억 원 이상의 후원금을 모금해 지원했다. 석주스님은 역경사업의 성취를 필생의 원력으로 삼아 승가는 물론 불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동국역경원은 총장과 불교대학장 등 8명의 편집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경번역위원회는 번역분과, 증의분과, 윤문분과로 나뉘어 각계 학자들이 동참하고 있다. 편찬실에서는 편찬과 교열 업무를 담당하고 원활한 보급과 유통을 위한 업무지원팀이 별도로 가동되고 있다. 역경원은 한글대장경의 간행 외에도 〈불교사전〉 〈불교성전〉 〈능엄경 주해〉 〈원각경 주해〉 〈신역화엄경〉 〈법화경〉 〈시와 불교의 만남〉 〈청허당집〉 〈인도철학의 산책〉 등 단행본도 출간했다.

임연태 편집위원
(ytlim@buddhapia.com)

금강불교대학 2545년(2001) 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

본 대학은 국내최고의 교수진으로 3년간 22과목을 가르치는 국내 최고의 불교교양대학으로써 한국 불교중흥에 이바지 할 천태종 종립교육기관입니다. 입학의 문은 불교신도가 아닌 누구에게도 열려 있으며, 수업료는 종단에서 지원합니다.

1. 모집학과 및 전형

학과 / 정원	지역(기수)	교육년한	교과목	교육일시	지원자격	특전
불교학과	서울(19기) 부산(14기)	2년	1학년 불교학개론 불교문화사 인도불교사 불교문리 원시불교 금강경 중국불교사 빈아사상 2학년 한국불교사 법화불교 정토사상 비교종교론 대승불교론 선사상 천태학개론 불교경전의이해	1학년 매주 월 화 2학년 매주 목 금 1교시 오후 6시30분 - 90분간 2교시 오후 8시 -90분간	· 고졸이상 학력소지자 및 2000학년도 졸업 예정자 · 천태종 총무원장 또는 주지의 추천인	· 수업료 종단지원 · 교법사과정 진학 자격취득
교법사과정	서울(8기) 부산(8기)	1년	포교방법론, 천태종학, 불교학특강, 포교실습, 유식사상, 육묘법문, 불교의식, 의식교육	매주 수 목 1교시 오후 6시30분 - 90분간 2교시 오후 8시 - 90분간	1 본대학 2년 수료자 또는 2 불교전문 교육과정 2년 과정의 수료자	· 수업료 종단지원 · 포교사 자격증 수여

학과	모집정원	원서교부 및 접수	제출서류	원서료 및 전형료	전형방법	면접일시
불교학과	서울 부산 각 120명	가 기간 2000년 11월 13일부터 2001년 2월 5일 오후 4시까지 나 접수처 서울 부산 금강불교대학 교무과	가 입학원서1부(본교 소정양식) 나 주민등록등본1통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라 반명함판사진 5매(원서용포함)	가 원서료 5,000원 나 전형료 10,000원	가 1차 서류심사 나 2차면접	서울 2001년 2월 21일 (오후4시) 부산 2001년 2월 13일 (오후6시)
교법사과정	서울 부산 각 50명		불교학과 구비서류 + 본대학2년 수료증명서 또는 불교전문교육과정 2년 수료증명서1통	가 원서료 5,000원 나 전형료 20,000원		서울 2001년 2월 21일 (오후4시) 부산 2001년 2월 22일 (오후6시)

2. 교수진 소개 (불교계 국내 최고의 정상급 교수진)

이재창 원의범 정태혁 김영태 리영자 권기종 서윤길 장충식 김상현 조용길 이봉춘 강동균 곽만연 권탄준 김용표 이은윤 최봉수 김사업 장휘옥 최종석 허경구 지창규

3. 대학위치

서울 : 서울 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56번지 관문사내
- 양재역 성남방면 7번출구 마을버스 5, 6번 버스
- 강남역 6번출구 414번 버스

부산 : 부산광역시 진구 초읍동 131번지 삼광사내
- 어린이대공원 인접지역에 위치함

4. 원서 교부 및 문의처

서울 금강불교대학 교무과 (서초구 우면동 관문사 2층)
전화 : 02-576-6401-2 팩스 : 02-574-1541

부산 금강불교대학 교무과 (부산진구 초읍동 삼광사 지관전 1층)
전화 : 051-808-0730 팩스 : 051-819-7654

대한불교 천태종 **금강불교대학장**

佛紀 2545년 (辛巳年)
이천만 불자가 하나되어
희망찬 새해를 만들어 갑시다.

천보공업사
임직원 일동
■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289-3
전화 : 051) 315-2859

최고의 기술로 최고의 서비스를 창조하는 기업
아리테크 서비스
A-RI TECH SERVICE Co. LTD
◇ 선박수리(기관 / 갑판)
◇ 유 압
◇ 추진기
◇ 감속기. 역전기
■ 부산시 영도구 남항동 1가 28
전화 : 051) 417-9177~8
팩스 : 051) 417-9179